

일반논문

권영옥 | 노천명시에 나타나는 고독의 변모 양상

서진영 | 김승희 시에 나타난 수직적 상상력 연구

김복순 |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1945년 8·15』 『효풍』 『해방』을 중심으로

장미영 | 박경리 1960·70년대 장편소설 연구

-가족관계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김은하 |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노천명시에 나타나는 고독의 변모 양상

권영옥*

〈차례〉

1. 서론
2. 고독의 형성과정과 의미
3. 존재양식에 의한 고독의 형상화
 - 3.1.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
 - 3.2.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독과 죽음
4. 고독의 탈피로서의 초월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노천명이 섬세하고 절제된 일상적인 삶과는 달리, 구원으로서의 작가의식과 명예의식적 삶에 대해서는 절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노천명 스스로가 작가의식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며, 타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세상의 시선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노천명 시의식의 부정적인 한 정서로 작용하여 고독 속에 갇히게 되는 이유이다.

노천명의 시에서 고독은 작가의식에 의한 결핍으로서의 나르시시즘적 고독과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독과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노천명은 고독의 탈피로서 타자를 향한 초월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아주대학교

근대 이후 실존적 고독은 타자 속에서 주체가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인 노천명의 고독은 존재자인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재성을 내안에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걸 의미한다. 이때 주체는 흐르는 현재의 존재를 포획하고 홀로서기로서 자신 안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때 주체의 실존이 그 자신에게 속한 무게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천명의 고독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온 편이다. 그러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기에 피상적인 것에 머물거나 전체로 끌어올리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한계를 지양하여 노천명의 시 전체를 통해 고독의 변모를 알아보았다. II장은 고독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살피는 장이다. 여기서 노천명 시에 나타나는 고독 중 하나는 결핍에 의해 형성된다. 이때 고독은 성의 정체성 혼란, 세속적인 이유, 작가 의식에 기인한다. 이는 자아의 이중성과 불만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주체는 타자와 화합하지 못한 채 고독의 비극성 속에 갇힌다. III장에서 하나는 우울과 의기소침의 반어적 의미로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에 대해 규명했다. 또 하나는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독과 죽음에 대해 규명해 보았다. 여기서는 전기적 사실, 부역, 조실부모에 대한 고독과 죽음의식이 깔리게 된다. 노천명의 죽음 의식은 오랜 신체적 고통에 의해 강박증을 낳을 수 있다고 과정하면, 이런 강박증 속에는 죽음욕동과 연결된 삶의 욕동에 의해 주체는 고독에서 벗어나고 타자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로써 노천명시에서 고독은 타자에 의해 갇히고 자신 안에 있는 삶의 욕동에 의해 타자를 맞이하고, 타자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IV장에서는 고독의 탈피로서 초월을 규명해 보았다. 이는 하나의 존재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의 이행을 뜻한다. 즉, 의식의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인 신에게 의탁을 의미한다. 이때 신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타자들에 대한 경외를 통해 실현된다. 타자들은 나뭇잎, 호수의 물결, 낮선 타인의 얼굴 등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정화된 타자의 얼굴은 윤리적 질서를 전달하는 ‘그 무엇에 이르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타자들의 ‘정신 부활’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천명의 고독에 관한 문학적 의의는, 노천명이 타자와 관계의 흐름

에서 단절되어 있다가 정신적 부활을 통해 다시 타자로 향하는 것이다. 이는 고독에 대한 속죄양을 의미하며, 속죄양은 아가페적 문학관을 형성하게 된다. 아가페적 문학관은 인간이 하느님께 보내는 사랑처럼 타인의 얼굴에서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심어: 고독, 나르시시즘, 결핍, 죽음, 죽음욕동, 삶의 욕동, 주체, 타자, 초월, 아가페 문학관, 노천명시에 나타나는 고독의 변모 양상

1. 서론

노천명은 1930년대 시단의 대표적인 여성시인이다. 그는 여성 특유의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 감상과 과장에 대해 절제된 시를 썼다. 최재서는 「시단전망」에서 노천명의 시를 언급하면서 ‘감상의 극복’, ‘섬세한 서정’, ‘절제된 언어미학’을 갖고 있어, 1930년대 낭만주의자들과 다른 시라고 했다.¹⁾ 이는 노천명이 애수와 고독을 안으로 심화시키고, 감성을 절제해서 개성 있는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이다. 노천명의 시집 주제인 고독, 향수 정서만 봐도 절제된 언어미학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천명은 이런 미학 속에 숨겨진 일상적 삶과 달리, 구원으로 서의 작가의식과 남성지배 사회 안에서의 명예의식적 삶에 대해서는 절제 되지 못했다. 거기엔 노천명이 스스로에게 방해 되는 작가의식의 짐을 지고 있고, 타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세상 시선에 대한 저항의식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자기 시의식의 부정적인 한 정서로 작용하여 ‘고독’을 낳게 된 것이다.²⁾

노천명의 시집 중에서 『산호림』(1938), 『창변』(1945), 『별을 쳐다보며』(1953), 『사슴의 노래』, 1958년을 대상으로 논의한다면, 이 시집들의 시어

1) 최재서, 「시단전망」, 『문학과 지성』, 1938, 240쪽.

2) 이인복, 「노천명론」, 『비평문학』, 2002, 240쪽.

의 특징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집에서 ‘고독’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하나는 작가 의식에 의한 결핍으로서 나르시시즘적 고독의 형상화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 고통에 의한 고독과 죽음으로서의 형상화이다. 이 양상들을 통해서 봤을 때, 노천명은 고독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타자를 향한 초월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 규명해 볼 것이다. 또한, 노천명의 시 의식에서 ‘고독’은 시 전체에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지도 따져볼 것이다.

고독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온 편이다.³⁾ 구창남에 의하면 노천명 시는 인생만사 애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고독의 상징화인 장미는 정열을 극복하는 자세라고 본 것이다. 본고는, 노천명의 시에서 장미의 상징은 수동적, 능동적 대상으로 나타나며, ‘붉은 장미’는 정서를 객관화하고 질서화 하는 것으로 변용된다. 박수연에 의하면 노천명은 자기만의 세계로서 문학을 고독으로 치장했다고 한다. 본고는 노천명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을 이중적이라고 본다. 여성적 심리 안에는 ‘고독’이 명분화되어 나타나지만, 사회적 명예의식에는 남성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다가 한계 상황에서 고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

3) 고독과 향수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김지향, 「사슴과 고독, 그 허상과 실상」, 『시문학』, 1973. 10월호.

권도현, 「고독과 니힐의 부정문학-천명과 청마와 작가의 고뇌」, 『현대문학』, 1973. 10.

성낙희, 「향수와 고독(천명의 시와 세계)」, 『청파문학』 13호,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1980.

허영자, 「고독과 향수의 시인」,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75.5.

노병근, 「고향의식의 양상과 의미-지용시와 천명시를 중심으로」, 『한국학 논문집』,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5.2.

이명찬, 「고향에 이르는 길 -노천명론」, 『문학과 교육』 10호, 한국교육미디어, 1999, 가을.

구창남, 「盧天命의 詩世界」,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2007.8.

김현자, 「사슴 해설」, 『노천명 전집』, 솔출판사, 1997.

이성교, 「노천명 연구」, 『성신여자사범대학 연구논문집』 1, 1968.

박수연, 「노천명 시의 서정적 내면과 파시즘」, 『비교민속학』 17권 3호, 2009, 235쪽.

타난다. 이런 이유에서 보면, 박수연의 노천명에 대한 고독은 문학 전체를 명분화 하는 시의식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인복은 노천명의 고독을 작가의식, 명예의식,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결손이라고 한다.⁴⁾ 본고가 봤을 때, 이러한 결손은 개인의 모든 복수성의 거부이기에 존재자인 자신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본고는 이인복의 결손의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한다. 노천명의 고독이 작가의식의 결핍에서 오든, 신체적 고통에서 오든, 모든 고독은 타자와의 거리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노천명의 ‘고독’에 대해 연구한 논자들은 주로 ‘고독과 향수의식’에 대해서 살폈으며, 소재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기에 피상적인 것에 머문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인복은 ‘고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언급한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노천명의 전기적 비평과 관련지어져, ‘고독’을 전체로 끌어올리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한계를 지양하여 노천명의 시 전체에 나타나는 ‘고독’의 의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고독의 형성과정과 의미

근대 이후 고독은 타자 속에서 연관되어지는 주체와 주체의 사회성에 대해 정의된다. 반면에 레비나스는 고독을 존재자인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재성을 필연적으로 내안에 갖고 있는 걸 의미한다. 이때 자아는 타자와 하나로 혼합되거나 융화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아와 타자의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흐름이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는 시간의 흐름을 단절시켜야 타자와의 거리가 유지되어 ‘홀로’ 있게 된다. ‘현재’는 흐름에서 분절되어 나온 것이다. 이때 현재의 주체는 존재자인 자신이 된다. 주체는 흐르는 현재의 존재를 포획하고, 홀로서기

4) 이인복, 「노천명론」, 『비평문학』, 2002, 240쪽.

로서 자신 안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런 얽매임은 타자와 타자 안에 있는 주체의 실존이 그 자신에게 속한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 간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천명사에서 주체는 결핍과 신체적 고통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에 갇히게 된다. 주체의 결핍에 의해 형성된 고통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성의 정체성 혼란으로 나타난다. 그는 어릴 때 사내아이로 길러진다. 남장 여아로서 그 시기에 겪어야 하는 여성의 거세 경험을 느끼지 못한다. 이때 거세에 대한 공포는 주체 자신에게 무의식적 지위를 부여하게 만든다. 거세 경험을 느끼지 못한 노천명은 이상적인 형태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는 내부의 모순 즉, 성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결핍이 생긴다.⁵⁾ 그의 시 「남사당」은 거세에 의한 정체성 혼란을 드러낸다.⁶⁾ 또한 그의 고통은 외모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다. 예쁘지 않은 용모에서 오는 외모 콤플렉스는 그를 타자들과 비사교적이게 한다. <자화상>⁷⁾ 시를 통해서 보면 그는 우울과 의기소침에 의해 나르시시즘적 콤플렉스를 앓는다.⁸⁾ 둘째, 세속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유명세’와 관계있는

- 5)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옮김,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39~41쪽
 라깡에 의하면 자기에 단계의 아이들은 외적 면에서 성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동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분화 상태의 상징을 남근으로 보는데 아이가 성숙하고 거울 단계를 벗어나 상징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상적으로 남근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거세이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한 과정이다. 다시 말해 남녀의 성 구분을 말한다. 라깡은 이 거세를 ‘대상의 결여’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하며 결핍으로 보았다.
- 6) 시 '남사당' 나는 얼굴에 紛을 하고/싸네리는 사나이//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다홍티마를 들르고 나는 喬丹이가 된다. (중략) 내 男聲이 十分 屈辱된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 사나이는 자신의 외적 모습인 여성의 복장과 분장, 女聲 목소리를 보면서 심한 굴욕감을 느낀다. 이는 화자가 사나이 자신에 대한 가치인식을 두는 것으로서 사나이 본래의 모습을 지니지 않아 정체성과 결핍을 느낀다.
- 7) 시 '자화상', 대자 한치 오픈 키에 두치가 모자라는 불만이 있다. /부엌부엌한 맛은 전혀 잊어버린 얼굴이다. 이 시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기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시 전체를 통해서 본 결핍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애적 성격을 띤다.
- 8) 알프레트 쉘프, 김광명·김정현·홍기수 옮김, 『프로이트와 현대철학』, 열린책들,

것으로서 남성위주의 문단에서 여류는 희귀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지적 능력이 열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데서 나타나는 지적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노천명은 남·여 차별적 교육관과 생물학적 차이로 전이되는 환경을 싫어했다. 또한 그의 정신적 결핍은 시인으로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기질 탓도 있다. 셋째, 작가의식에 기인한다.⁹⁾ 그는 작가의식에서 자기 존재 추구에 대한 질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한 탓에 고독한 시의식의 시인이 된다. 신체적 고통에서 오는 고독의 형성과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기적 사실과 관계 된다. 노천명은 6세 때 홍역을 심하게 치러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다. 둘째, 부역에 의해 나타난다. 그는 1950년부터 6개월간 囹圄생활에서 온 재생불량성 뇌빈혈로 정신과 신체 모두 병약했다. 셋째, 어머니의 죽음 및 부역에 의해 피해망상증을 앓는다. 여고시절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삶을 죽음의식과 허무의식으로 점철되게 했다. 또한 출옥 후 그녀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다. 따라서 노천명은 어머니의 죽음과 스스로에게서 생긴 죽음 같은 고통은 그녀로 하여금 반복강박증을 앓을 수 있는 전체를 낳는다. 반복강박증 안에는 죽음욕동과 삶의 욕동이 있다. 이 삶의 욕동은 주체로 하여금 존재실현을 돕는가 하면 타자들과 향유케 하는 기쁨도 준다.¹⁰⁾

한편, 노천명의 시에 나타난 고독은 자아와 타자 사이를 분리하는 공간 역할도 한다. 그에게서 작가의식이 완전을 지향하는 시인 본성과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는 타자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자화상>시에서 신체적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그것이 시에서 자기부정적 정서를 갖는 계기가 된다. 이 정서는 현재 타자와 상호관계가 아닌, 흐름으로부터 단절된 고독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천명의 고독은 ‘홀로서기’로서 흔적이다.¹¹⁾

2001, 106쪽.

9) 이인복, 위의 글, 238쪽.

10) 이정호, 『텍스트의 욕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8쪽.

11)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4쪽.

이때 고독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흐름의 속성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결핍이고, 하나는 공간 속의 '홀로 있음'에 대한 자유이다. 결핍은 존재자가 세상과 거리두기로 홀로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있음'에 대한 자유는 공간적 차원이다.¹²⁾ 노천명에게서 고독은 인간존재의 결핍에 의해 생긴다. 그의 고독은 전기적 사실과 작가의식에 의해 드러나는데, 그의 시 <자화상>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체의 고독은 자아의 이중성을 나타내며, 불만으로서의 자존의식을 드러낸다. 노천명의 시에서 주체가 공간 속에 혼자 있는 것은 자기 동일성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걸 의미한다. 또한 타자의 부재를 인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노천명 자신이 타자로 향하는 초월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핍에 의한 고독은 우울과 의기소침의 반어적 의미를 말하는 자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천명의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성의 정체성과 세속적 불만에 의해 생기는데, 작가의식의 탐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고는 노천명의 시에 나타나는 존재의 고독을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과 신체적 고통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그의 전기적 사실과 작가의식에 대한 결핍의식으로 나타난다. 노천명의 죽음의식은 신체적 고통¹³⁾과 허무의식에서 오는 죽음욕동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이 두 형상화를 통해서, 노천명 시의 고독은, 주체가 타자와의 향유 속에서 인간존재의 초월인 종교의 귀의로 나타난다.

12)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연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4, 57~69쪽.

13) 그의 수필집 『바닷가를 찾아서』에 실린 「병상에서」를 통해서 보면 지병인 빈혈로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의 수혈을 했고 그로인해 두드러기가 돋았으며 피를 토했다고 적혀있다.

14)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연안 옮김, 앞의 책, 76쪽.

신체적 고통은 내면속에 극단적인 교양작용인 죽음욕동을 갖는다. 집단성과 상호작용을 벗어나서 현재라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치 가슴을 찢는 것 같다거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열린 영역 같다거나, 고통을 통해 또 다른 사건의 전야에 처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고통을 받는 고독의 주체는 삶의 욕동에 의해 빛의 영역 밖으로 타자들을 향해 나간다.

3. 존재에 의한 고독의 형상화

3.1.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아가 자기 사랑에 대한 도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존재적 위기를 맞는 의식 현상이다. 노천명의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전기적 사실, 작가의식, 세속적인 명예의식¹⁵⁾을 통해 드러나며, 이 의식 속에는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핍은 주체의 불만 토로 때문에 생긴 것이며 타자와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노천명의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자아와 타자의 불일치에 의한 의기소침과 버거움으로 인해 온 것이다. 따라서 노천명의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고독은 자존심 강한 자아가 타자로부터 억압을 받아 홀로 공간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의식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¹⁶⁾

여기서 강한 자아는 자기불만으로부터 생성된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핍에 의한 고독은 우울과 의기소침의 반어적 의미가 들어있다. 이 시에서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노천명에게서 타자와 거리두기인 「사슴」으로 대상화 되어 나타난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짐작은 편 말이 없구나.

15) 이인복, 위의 글, 235쪽.

이화여전 출신, 신문기자 생활, 『산호림』 출간 후 호화로운 출판기념회를 열고 운집한 문인들로부터 <마리 로랑상>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극예술연구회도 가입했다. 이 시기 최고 엘리트여성의 길을 걸었던 것이 세속의 명예의식에 물들게 했다.

16) 오세영, 앞의 책, 92쪽.

이 결핍은 유년시절 노천명이 사내아이로 길러짐과 예쁘지 않는 용모에서 오는 사회적 억압 때문이다. 시집 『산호림』에서 '자아상', '사슴' 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시편들은 노천명 고독의 결핍인 나르시시즘과 연결된다.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 보고
있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본다.

-「사슴」, 1938년, 전문

「사슴」이 시에서 자아는 이상화된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 고독의 공간에 갇혀 있다. ‘사슴’의 고독은 슬픔과 자애적 연민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나르시시즘 현상과 결합하는데, 이 자애적 연민의 표상은 사슴이 긴 목을 늘어뜨리고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때 물은 ‘고뇌하는 원소’¹⁷⁾로서 고독의 공간을 말한다. 물은 이 시에서 영상 나르시시즘¹⁸⁾인 거울 이미지와 같다. 사슴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것으로, 고독의 자기 동일성 안에 갇혀 있음을 의미한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사슴의 행위는 모든 사물이 상하 수직으로 대립될 때에만 관찰대상을 반사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가지를 올려서 먼 데 산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습은 ‘사슴’의 정체성 문제로 대두되는데, 거울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 즉 거울 밖의 자아를 관찰하는 의식의 전도현상이 일어난다.

17)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물과 꿈』, 문예출판사, 2004, 171쪽.

18) Gason Bachelard, *L'et les Reves*,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37쪽.

정신분석학에서 나르시시즘은 영상이나 잠잔 물에 비치는 얼굴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나르시스의 표시로 보이도록 결정한다. 여기서 잠잔 물인 샘물은 열려진 상상력의 기회를 얻게 된다. 약간 어슴프레하고 약간 창백한 반영은 관념화의 작용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의 물 앞에서 나르시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완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성으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물에 의해 나타나는 영상 나르시시즘과 또 하나는 과대망상증의 확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이 있다.

사슴은 이 세계의 존재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존재형태를 기피하는 것으로서,¹⁹⁾ 사슴의 자의식은 ‘먼 데 산’을 통해 외부세계를 지향하지만, 현재 사슴이 위치한 공간은,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형상을 보는 게, 전부이다. 그것은 사슴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성을 잃어버리기 전인 과거의 이상화된 모습을 보는 걸 의미한다. 과거 사슴은 ‘관이 향기로운 높은 족속’, 즉 신화적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말이 없고, 향기로웠다’고 한다. 이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동일시가 아닌 상층에서 오는 자기존재의 고독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천명은 고독한 슬픔을 이상화된 사슴에다 자신의 모습을 투사한 것이다. 이는 노천명이 어릴 때 남장 여아로 자란 탓에 거세 경험을 할 수 없어, 성의 정체성 결핍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남성 위주 문단에서 여류가 느끼는 지적콤플렉스와 작가의식에서 오는 갈등도 합쳐져서 이차적 나르시시즘²⁰⁾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 이처럼 노천명은 타자로부터 거리두기를 두는 갈등 표출 방식은 폐쇄적이다.

「바다에의 향수」시는 시적 자아가 이상화된 과거와 동일시를 이루는 것으로서, 시에서의 바다와 하늘은 나르시시적 표현이다.

記憶에 잠긴 藍빛 바다는 아드윅하고

19) 이동용,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시즘』, 책 읽는 사람들, 2001, 81쪽.

이것은 슬픔이나 향수와 같은 것으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화된 자아를 혼동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한다. 이는 화자의 현실적 자아와 이상화된 자아 사이에 동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20) Sigmund Freud, *On Narcissism: Introduction*, 이용호 역, 백조출판사, 1977, 28~48쪽.

어린이가 건전한 성장으로 일차적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과정이다. 리비도를 자아가 아닌 대상에 투사하면서 자기애적 만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어린이가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으로 어떤 병적 억압을 받게 되면 자아는 리비도의 대상충동이 불가능해져서 다시 자아충동으로 가기를 원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를 이상화하게 됨으로써 이상화된 자아에 대한 자기애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자아가 성장 후 겪는 나르시시즘을 말하는데, 이차적 나르시시즘을 병적 현상으로 본다.

그리는 情熱은 것잡지 못한 채
 하늘 머언 뭇우에서
 오늘도 떠가는 구름으로 마음을 달래보다

지금은 바다 저편엔 七月의 太陽이 물우에 빛나고
 기인 航海에 지친 배의 肉重스런 몸뚱이는
 집시의 퇴색한 꿈을 안고 푸른 요우에 뒹굴며(중략)
 장엄한 출범은 이 아침에도 있었으리...
 늑실거리는 파도 - 바다의 호흡 - 흰 물새 -
 오늘도 내 마음을 차지하다 -

-「바다에의 향수」, 1938년, 일부분

노천명의 「바다에의 향수」시에서 자아는 뭇 우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예전 남빛바다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의 이상화된 세계를 그린다. 이때 자아가 느끼는 정감은 “하늘 머언 뭇우에서 오늘도 떠가는 구름으로 마음을 달래보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적자아가 기억 속에서 세계와 동일화를 이루는 절대적인 세계를 그린다. 이때 나르시스 사랑이 이상화된 세계 속에 자신을 투사하는 것으로서, 고독한 자아가 이상적 자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인 항해에 지친 배의 육중스런 몸뚱이는/집시의 퇴색한 꿈을 안고 푸른 요우에 뒹굴며/낮익은 섬들의 기억을 뒤적거리리”, “푸른 밭을 갈아 흰 이랑을 뒤에 남기며 장엄한 출범은 이 아침에도 있었으리...” 등의 시적 상상력은 동일화된 과거의 나르시스즘을 뒷받침하는 시행들이다. 이런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정감은 개별체로 고독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자아가 나르시스즘을 통해 절대 자아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두 개의 이미지를 갖는다. 1연의 바다는 화자가 고독한 상태에서 이상화된 자아를 그리는 바다이고, 2.3연의 바다는 현재 일반적

인 바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노천명은 「바다에의 향수」시를 통해서 자신과 타자와의 원만하지 않은 현실을 극복한다. 여기서 “화려한 출범을 위해”는 과거의 주체가 자아와 세계의 동일화를 이루던 때를 말한다. 이때의 나르시시즘 역시 현실의 고독을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이상적 자아 상태에 있다.

위의 시에서 시적자아는 정열적인 대상과 이상화된 세계에서 동일시를 이룬다. 반면에 「고독」시는 자아와 타자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자아가 유리된 채 고독 속에서 갇힌다.

그는 고요한 사색의 호숫가로
나를 달래 데리고 가
내 이지러진 얼굴을 비추어줍니다.

-「고독」, 1938년, 일부분

「시슴」은 시적화자의 대상화된 투사라면 「고독」은 관념화된 투사이다. 시적자아는 타자와 관계에서 대화나 집단적 작업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다. 주체는 화를 받는 어린 감성이어서 실존적인 고통을 강하게 느낀다. 이때 주체의 고독은 타자를 단순히 망각하기 위해서 생긴 고독이다. 「고독」이 시에서 주체는 관념화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나르시시즘적 고독을 드러낸다. 이때 주체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고독 전체이며, 이즈러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동일화 되지 못한 나르시시즘적 고독이다. 따라서 주체는 과거의 이상화된 세계에서의 동일화가 아니라, 타자와 유리된 채 현실 속에서 나르시시즘적 고독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타자와 동일시되지 못하고 주체로 하여금 허무와 죽음의식을 낳게 한다.

21) 문혜원, '노천명 시에 나타나는 자아 정체성 연구', 『성심어문논집』 제23호, 2003, 220쪽.

3.2.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독과 죽음

노천명에게서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이 이상화된 대상에다 자신의 모습을 투사한다면, 다른 한 방향인 신체적 고통으로서의 고독은 ‘죽음’의식을 갖는다. 이런 인간 존재의 결핍과 신체적 고통에 의한 고독은 존재가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속성이자 절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성들은 각자 개별체로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혼자 갇혀있고’, ‘혼자 죽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개별체의 ‘죽음’은 살아 있는 실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현상은 인간의 인식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기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마주친 주체의 실존적인 불가능성이다.

노천명시에 나타나는 죽음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인간의 인식 밖에서 찾아오는 최후의 고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천명의 죽음의식은 전기적 사실과 관계된다. 하나는 6세 때 홍역을 앓다 살아난 후 병약한 몸이 하늘의 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天命’으로 개명할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1950년부터 만 6개월간 시작된 囹圄생활이 그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핍박하게 한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과 영어생활은 노천명으로 하여금 피해망상증과 죽음의식을 낳게 한다. 이 세 가지 사실로 봤을 때, 노천명의 오랜 신체적 고통은 반복강박증을 낳게 한다. 그 속에는 죽음 욕동이 있다. 죽음욕동 속에는 삶의 욕동도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²²⁾ 따라서 신체적 고통은 나약한 인간 존재를 고독 속에 갇히게 하고, 죽음이 가까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한다.²³⁾ 하지만 삶의 욕동 속에는 타자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타자성도 들어있다. 이는 주체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화상」, 「국화제」시는 노천명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죽음의식과 고독을 나타낸 것이다.

22) 이정호, 『텍스트의 욕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8쪽.

23)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연안 옮김, 앞의 책, 76쪽.

꼭 다문 입은 괴로움을 내뿜기보다 혼히는 혼자 삼켜
버리는 서글픈 버릇이 있다 세 온스의 '살'만 더 있어도
무척 생색나게 내 얼굴에 쓸 데가 있는 것을 잘 알 것만

-「자화상」, 1938년, 일부분

웃음 거둔 네 얼굴은 수그러져
빛나던 모양은 한 잎 두 잎 병들어가는구나
아침마다 병(瓶)이 넘게 부어주는 맑은 물도
들녘의 한 방울 이슬만 못하더냐?
너는 끝내 거친 들녘 정든 흙 냄새 속에
맘대로 피지고 멋대로 자랐어야 할 것을……

-「국화제」, 1938년, 일부분

위의 시는 노천명이 국화에다 자신을 투사한 것이다. 오랫동안 병약한 몸으로 살아온 그녀의 소망은 '세 온스의 살'만 더 있으면 부엌부엌한 얼굴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보통 모습과 다른 '결핍'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타자를 취하여 투사와 희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자아 대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여 고독 속에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²⁴⁾ 또한 국화로 대상화된 시적자이는 자연 상태에서 꺾어짐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느낀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수그러진', '한 잎 두 잎 병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적 고통에 처한 국화는 '맑은 물'로 몸 전체를 정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식 밖에서는 죽음의 그림자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천명의 신체적 고통에 의한 고독과 죽음은 존재의 인식 밖에서 오는 최후의 고독이자 타자와 현재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의식은 첫 시집, 『산호림』의 「喪章」과 「만가」에서 잘 나타난다.

24) 알프레트 쉘프, 김광명·김정현·홍기수 옮김, 앞의 책, 234쪽.

한방 안되는 고독이 나를 둘러싸고
목화송이 같은 눈이
소리 없이 밖에 내려 싸이고

병어리처럼 말이 없음은
상가집 곡성보다 더 처량했다
오! 슬픈 장난이여...

-「喪章」, 1938년, 전문

요령을 흔들며 조용히 지나는 덴 낮익은 거리
들.....
엄숙히 드리운 검은 포장 속엔
별써 시체된 그대가 냄새 납니다
그대 상여 머리에 옛날을 기념하러
흰 장미와 백합을 가드윅히 얹어
향기로 내 이제 그대의 추기를 고이 싸려 하오

-「만가」, 1938년, 일부분

온 것조차 모르시니/애닦은 이 마음이라
눈 들어 먼 山 보니/안개 어이 가리는고
발밑의 흰 떨기도/눈물 젖어 있더라

-「省墓」, 1938년, 일부분

노천명에게서 고독은 상가집 곡성보다 더 처량해 보인다. 고독이 그만큼 존재자 자신을 죽음이라는 현상 속에 내몰 정도로 모든 걸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한다. 망각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가 아닌, 타자와 관계했던 의식들을 떨칠 수 없으므로 ‘목화송이 같이 쌓이는’ 흰눈으로 무화되고자 한다. 이때 눈이 제시하는 흰색은 죽음과 연결된다.

망각은 기억 자체를 없애는 의미에서 죽음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아는 ‘인생이 하나의 슬픈 장난’이라고 한다.

아래 「만가」시는 상엿소리를 통해 한 망자가 타자와 관계했던 행적에 대해 회고 한다. 망자인 ‘그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여에 가득찬 ‘흰 장미와 백합’을 통해 망자의 생전 행적을 암시한다. ‘흰 장미와 백합’은 카톨릭에서 ‘성모마리아’로 상징²⁵⁾된다. 이 시에서 그대는 성모마리아처럼 겸양과 정화를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천명이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겸양과 정화를 말하지만, ‘시체된 그대 냄새가 납니다’, ‘그대의 추기를 고이 싸려 하오’ 등 표현 미숙의 시행은 “죽음이 냄새를 피는” 시체로만 연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喪章」시의 영탄법 역시 현실감에 대한 능력 저하를 내보이며 죽음을 친숙한 인생사로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천명의 죽음의 시는 어릴 때 겪은 신체적 고통 때문에 시작 과정 전체를 승화의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의 죽음에 관한 시의식은 아직도 고독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어렸을 때 찾아온 병약함이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사고의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省墓」시는 추석날 어머니의 무덤에 성묘 가서 느낀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고인이 된 어머니는 시적자아에게서 조실부모의 한과 허무의식을 심는다. ‘밭밑의 흰 떨기도/눈물 젖어 있더라’에서 감정이입은 시적자아의 큰 슬픔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병약한 몸에서 나온 눈물과 허무의식은 후일 노천명을 피해망상증과 반복강박증으로 시달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

반면에 『창변』의 시편에 오면 죽음의식은 「墓地」, 「새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의 욕동 속에 연결된 삶의 욕동으로 인해 노천명은 고독을

25) “나는 샤론의 들꽃, 골짜기들 아래의 나리꽃/ 가지덤불 속 한 송이 나리꽃 같아라, 야가씨들 가운데 내 사랑은!/ 숲 속의 사과나무 같아라, 젊은이들 가운데 내 사랑 하는 님은! /그의 그늘 속이 너무나 즐거워 내가 앉았고, 그의 열매는 내 혀에 달콤 하였네. - 노래들의 노래(=구약 아가) 2/1-3에서 (사역)에서. 이처럼 ‘흰장미와 백합’에 대해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상징한다. 상징은 겸양과 정화를 뜻한다.

벗고 타자를 환대하고 맞이한다.

황혼이 무서운 어두움을 뿌리면
내 안에 피어오르는
산모퉁이 한 개 무덤
비애가 꽃잎처럼 휘날린다.

-「墓地」, 1945년, 일부분

오랜만에
부드러운 정과 웃음과 흥분 속에 다시
사람들은 안에서 '희망'이
포기포기 무성하고

나 이제 호수 같은 마음자리를 하고
조용히 남창을 열어 수선(水仙)과 함께
'새날'의 다사로운 날빛을 함뱍 받으렵니다

-「새날」, 1945년, 일부분

위의 시 「喪章」과 「만가」에서 시적자아는 죽음 자체를 수락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상태에서만 머무른다. 하지만 「墓地」에 오면 자아는 흰색과 검은색이 주는 죽음에서 벗어나 노랑황국의 색채를 통해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에서 탈피한다. 자아는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꽃잎 같은 '비애'라고 한다. 이는 죽음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신비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가 시인에 의한 시작업이라고 한다. 여기서 비애가 꽃잎으로 신비화 하는 이면에는, 시의 대상인 노란 황국이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열린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새날」

26) 임마누엘 레비나스, 앞의 책, 142쪽.

시는 주체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죽음욕동이 생기고, 죽음 욕동에는 삶의 욕동이 연결되어 있어 주체는 죽음의식에서 벗어나 타자를 환대하고 희망을 노래한다. 이는 노천명이 죽음 의식 속에서도 탈고독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천명의 존재는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에게 향했던 무게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그는 죽음에서 오는 삶의 무의미성과 비극성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노천명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독과 죽음’은 자신과 타자들에게 편입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세속적 결핍과 작가의식에서 온 결핍을 아우르기 위한 것이며, 이는 노천명이 타자와의 향유로 초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고독의 탈피로서의 초월

노천명에게서 고독의 탈피는 초월의 의미를 띤다. 나르시시즘적 고독에서는 이상화된 자아를 그리지만, 탈피로서의 고독과 죽음에서는 죽음 성격을 띤다. 이는 인간에게서 죽음이 최후의 고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존에서는 죽음 자체를 말할 수 없지만, 죽음 욕동과 연결된 삶의 욕동에서는, 시 의식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다. 이때 노천명의 초월은 주체 밖에서 존재하며 주체를 바라보는 타자이다. 즉, ‘존재론적 지평에서의 돌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천명이 고독에서 벗어나 작가의식이나 세속적인 세계를 흡수하고 타자와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의 이행이며, 제약된 생존에서 제약 없는 존재양식, 완전한 자유에로의 이행을 말한다.²⁷⁾ 다시말해 노천명의 자아가 고독 상태에서 벗어나 타자와 향유 속에서 빛을 느끼는 것이다. 이 빛의 근원은 보편적 상징으로 볼 때, ‘하늘’에 잇대고 있어 ‘상승’을 의미한다. ‘상승’이란 ‘무엇을 넘어서는가’와 ‘무엇에 이르게 되는’가로 존재의 의미 규정을

27) 김인섭, 『김현승시의 상징체계 연구』, 보고사, 1999, 244쪽.

짓는 차원이다.²⁸⁾ 노천명에게서 ‘무엇을 넘어서는 가’와 ‘무엇에 이르게 되는가’는 초월의 의미로서, 의식의 차원인 ‘고독’에서 인식의 차원²⁹⁾인 ‘신의 의탁’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노천명이 ‘신의 의탁’을 통해 고독 속에서 빛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노천명은 「感謝」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초월의 빛인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를 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感謝」, 1945년, 전문

이 시에서 노천명은 고독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인다. 고독은 ‘푸른’, ‘태양’, ‘대기를 마신다’, ‘산보’ 등의 시어를 통해 나타난다. 이때 주체는 대상화된 타자의 모습에서 경외감을 느낀다. 그것은 희망, 세계, 화해라는 밝은 시어들로 신에게 「感謝」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신은 어떤 종교와 관련지어지지 않으며, 타자와의 향유인 초월을 의미한다. 그것은 노천명이 고독의 공간에서 자신을 그대로 있지 않겠다는 뜻이며, 타자에게 속죄하겠다는 의미라고 본다. 이때 속죄의 의미는 시적자아가 대상화된 타자의 모습을 보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노천

28) 손미영, '현대시에 있어서 존재론적 사유의 전개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26집, 2008, 250쪽.

29) 언어에서 초월성, 즉 인식의 차원이란 ‘무엇’과 ‘그 곳’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명은 작가의식에서 오는 결핍과 신체적 고통에서 오는 고독에서 벗어나 자신을 개방하고 죽음도 비교적 성숙한 인생사로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내비친다. 그 이유가 초월의 빛인 하느님 때문이다.³⁰⁾ 그것을 그의 일기 형식의 수필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 나는 가톨릭 교회엘 나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목욕을 하고 새로 만든 흰 옷을 갈아입고 형님을 따라 성당으로 향하는 길은 내게 있어 진실로 처음 갖는 엄숙한 길이었습니다.

수녀님은 화관을 씌워 주시고 신부를 만지듯이 만져주신 후 본당 신부님에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중략) 신부님은 나에게 ‘베로니카’라는 본명을 주셨습니다.³¹⁾

-수필, 『바닷가를 찾아서 4월 24일』, 1948년, 일부분

이로써, 노천명은 결핍과 고통, 고독과 죽음에 대한 사고를 넘어 인생 전반을 카톨릭에 귀의함으로써 인간적 성숙을 보게 된다. 다음 시 「秋風에 불이는 노래에서」 노천명이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환상으로 조응하게 된다.

가을 바람이 우수수 불어 옵니다

神이 올라오는 비인 馬車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입니까?

내 가슴이 썩-늘하게 살살이 일어듭니다

30) 노천명에게서 카톨릭으로의 귀의는 고독에서 온 죽음의식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왔는데, 어릴 때 앓았던 죽음 직전에서의 흥역과 영어생활에서 얻은 빈혈에 의한 고통이다. 또한 혼란된 질서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펼 수 없어서 오랜 고독 상태에서 얻은 허무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다. 노천명은 세계에 대해 윤리적 도덕적 부활을 시켜야하는 카톨릭의 올바른 종교관 때문에 귀의 한 것이 그 이유이다.

31) 노천명, 『사슴과 고독의 대화』, 서문당, 1988, 257쪽.

「人生은 짧다」고 실없이 옮겨본 노릇이
오늘 아침, 이 말은 내 가슴에다
화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秋風에 붙이는 노래에서」, 1958년, 일부분

노천명에게서 신이 오는 환상은 가을바람에 의해 촉발된다. ‘바람’은 카톨릭에서 성령의 현현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신이 자신과의 조응을 위해 마차소리로 온다고 한다. 반면에 시적자이는 가슴 썩-늘하게 살살이 일어서는 마음으로 신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한다. 이는 감각적 환상인 청각과 촉각에 의한 것으로서,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와 조응하는 단계로 승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신인 하느님과 운명의식을 자아관조적인 경지에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천명은 ‘「人生은 짧다」’로 함축된 지난날의 작가의식에 의한 결핍과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고독과 죽음 같은 것이 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빛의 주어짐은 노천명이 그 고통에서 멀리 벗어나 하느님께 돌아 온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노천명이 성숙된 자아의 참 모습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천명의 고독 탈피로서의 초월은 타자와의 경외심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인 아가페적 문학관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의 시 전반을 차지했던 나르시시즘적 고독과 죽음의식과 고통에서 벗어나 인식의 차원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³²⁾

땅 위의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나이다
가슴속 헤치며 드는 저 성당 종소리
탕자도 도둑도 당신의 죄 많은 아들들이
성당의 침탑을 우러러보며 십자를 굽습니다.

-「성탄」, 1958년, 일부분

32) 박경혜, 「노천명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27쪽.

온 누리에 그 소리 널리 퍼뜨리며
성당 종이 읊니다
벌써 몇 차례를 성당 종이 읊니다
새벽 미사엘 가는 사람들의
바쁜 걸음 소리가 어둠 속에 들립니다

-「새벽」, 1958년, 일부분

「성탄」, 「새벽」시는 노천명의 초월의 의미인 아가페적 세계관을 말하
것으로서, 신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타자들에 대한 경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타자들은 나뭇잎, 호수의 물결, 낮선 타인의 얼굴 등으
로 존재한다. 그 예로서 예수는 세속화된 타인의 얼굴로 존재하게 된다.
그 얼굴은 인간의 구원과 속죄에 관한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인간존재의 초월성을 상징한다. 이 시에서 “도둑이나 탕자도”
속죄양을 통해서 타자의 존재인 예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정화된 타자
의 얼굴은 이미 노천명에게 윤리적인 질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당 종소리가 퍼뜨리며 우는” 행위 역시 모든 타자들이 ‘무엇에 이르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타자들의 ‘정신 부활’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
람들의 인식은 ‘새벽’을 통해서 드러난다. 새벽은 어둠과 한낮의 중간인
‘미명’으로 타자들로 하여금 밤의 미분화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천명의 고독과 초월의 시의식은 지난날의 작가의식과 세속적
인 고독에서 벗어나, 윤리적, 도덕적 부활인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로써 노천명은 모든 모순과 편견, 고통에서 벗어나 현실자체
를 받아들이고 타자를 향한 아가페적 세계관으로 확장되어 간다.

5. 결론

노천명 시에서 고독은 노천명 본인도 언급했고, 몇몇 논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던 바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표피적인 연구에 그쳤고, 이인복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으나 전기적 고찰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연구했기에 고독 자체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본고는 고독을 실존적 한 표현으로만 드러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독의 변모 양상을 추적하고 시 전체에서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노천명의 고독의 의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민감함과 여성시인에게 주어진 칭송에 답하기 위한 세속의 버거움 때문이다. 또, 『산호림』 출간 이후 여류시인이라는 희귀성과 특별성이 그를 비일반화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적 고통과 허무의식은 병약함에서 오는 자존의식의 결핍으로 드러났다. 이 결핍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고뇌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때 노천명의 심리는 나약하고 불만조차도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이는 방어적 의미를 띤 채 자애적 나르시시즘이 된다. 결핍에 의한 나르시시즘적 고독은 이상화된 자아와 관념화된 고독을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상화된 자아는 나르시시즘적 사랑이 이상화된 세계 속에서 자신을 투사하는 것으로서 물과 하늘, 구름 등으로 절대 자아를 확대시켜 나아간다. 또한 고독으로 관념화된 나르시시즘은 노천명의 자아가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서, 폐쇄된 관습이 빚어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고통에 의한 고독은 죽음과 허무의식으로 나타난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천명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초창기엔 죽음을 피상적으로만 보다가 『창변』 이후에는 색채를 통해 죽음에서 벗어난다. 또한 반복강박증은 죽음 욕동과 연결된 삶의 욕동으로 인해 자아가 고독에서 벗어나 타자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논자들은 노천명의 고독을 죽음까

지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인복은 노천명의 죽음의 시를 보면서 범상한 여인이 죽음이 두려워 내뱉는 푸념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고는 노천명의 신체적 고통과 허무의식이 고양작용을 하여 죽음의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고독과 죽음은 노천명으로 하여금 고독을 탈피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성찰적 초월관을 갖는다고 본다. 초월의 의미는 타자를 통해 드러나는데, 타자의 얼굴은 예수처럼 인간의 구원과 속죄에 관한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본다. 이처럼 노천명은 정화된 타인의 얼굴에서까지 윤리적인 질서를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노천명의 고독에 관한 문학적 의의는, 노천명이 타자와 관계의 흐름에서 단절되어 있다가 정신적 부활을 통해 다시 타자로 향하는 것이다. 이는 고독에 대한 속죄양을 의미하며, 속죄양은 아가페적 문학관을 형성하게 된다. 노천명에게서 아가페적 문학관은 인간이 하느님께 보내는 사랑처럼 타인의 얼굴에서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고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에 대한 경외를 통해 아가페적 문학관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노천명의 시사적 위치는 이러한 부분에서 빛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노천명, 『사슴』, 노천명 전집, 솔출판사, 1997.

_____, 『사슴과 고독의 대화』, 서문당, 1988.

2. 단행본

김인섭, 『김현승시의 상징체계 연구』, 보고서, 1999.

이동용,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스즘』, 책읽는 사람들, 2001.

이인복, 『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意識의 史的 研究』, 悅話堂, 3. 단행 1978.

- 이정호, 『텍스트의 욕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영일 옮김, 『죽음의 미학』, 전예원, 1988.
- 레비나스, 윤대선 지음,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4.
- 샌디호치키스, 이세진 옮김,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교양인, 2005.
- 알프레드 슈프, 김광명·김정현·홍기수 옮김, 『프로이트와 현대철학』, 열린책들, 2001.
- 임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4.
- 딜렌 에반스, 김종주 외 옮김, 『라캉 정신분석사전』, 인간사랑, 2004.
- Gaston Bachelard, *L'et les Reves*,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 Sigmund Freud, *On Narcissism: Introduction*, 이용호 역, 백조출판사, 1975.

3. 논문

- 권도현, 「고독과 니힐의 부정문학-천명과 청마와 작가의 고뇌」, 『현대문학』, 1973.
- 구창남, 「廬天命의 詩世界」,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2007.
- 김지향, 「사슴과 고독, 그 허상과 실상」, 『시문학』, 1973. 10월호.
- 김현자, 「사슴 해설」, 『노천명 전집』, 솔출판사, 1997.
- 노병근, 「고향의식의 양상과 의미-지용시와 천명시를 중심으로」, 『한국학 논문집』,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5, 619~636쪽.
- 박경혜, 「노천명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박수연, 「노천명 시의 서정적 내면과 파시즘」, 『비교민속학』 17권 3호, 2009, 227~260쪽.
- 문혜원, 「노천명 시에 나타나는 자아 정체성 연구」, 『성심어문논집』 제23호, 2003, 215~235쪽.
- 성낙희, 「향수와 고독(천명의 시와 세계)」, 『청파문학』 13호,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1980.
- 손미영, 「현대시에 있어서 존재론적 사유의 전개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26집, 2008, 247~280쪽.

이명찬, 「고향에 이르는 길 -노천명론」, 『문학과 교육』 10호, 한국교육미디어, 1999, 가을.

이성교, 「노천명 연구」, 『성신여자사범대학 연구논문집』 1, 1968, 119~154쪽.

이인복, 「노천명론」, 『비평문학』, 2002, 231~265쪽.

최재서, 「시단전망」, 『문학과 지성』, 1938.

허영자, 「고독과 향수의 시인」,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75.

Abstract

(The) Transfiguration of Shown in the Roh Cheonmyeong Pomes

Kwon, Young-ok

In this study on the poetess of Roh Cheonmyeong, writer self-perception as means of salvation from her ordinary life which was delicate and temperate, and her self-honored life within a male chauvinistic society could not be restrained. Therefore she became to shoulder a burden of self as a writer and further embrac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against the eyes glued to the other side that has always been centered around. All the things above had a sort of negative influence on her emotion only to put her behind the bars of loneliness.

Solitude as shown in Roh Cheonmyeong's poems comes to being narcissistic loneliness resulted from the lack of writer selfawareness and self concept, and lonesomeness and ultimately death due to her physical p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well to closely examine how molting out of solitude led to transcendence toward the other side.

Existential solitude after modern era means the process which the subject undergoes and establishes self-existence as a main body. In this study, however, it means that the subject that is an etant or existant as to Rho cheonmyeong's solitude inevitably contains existence inside my being. Then the subject seizes the present flow of existence to be fettered inside self by stand-alone, which means the subjective existenz manages to overcome weight

caused by belonging to the self.

Solitude from Roh Cheonmyeong has rather been consistently discussed until now. By being dealt in terms of material, its limit has been reached because it appeals to a superficial thing or is not raised as a whole. Transfiguration of Roh Cheonmyeong's solitude has been studied throughout her poems while accepting the outcome of the precedent studies and rejecting the previously mentioned limit. In this context, chapter II examines the formation procedures of her solitude and its meaning. A type of solitude shown in the Roh Cheonmyeong's poems hereto is built from dearth. Solitude in this perspective comes from sexual identity, disorder, earthly excuse, and writer self-perception. It reveals duplicity in self and dissatisfaction so that the subject is shut in tragedy of solitude while not being incorporated with another. In chapter III is closely examined the one, that is narcissistic solitude due to deficiency by ironic means of melancholy and depression. The other to be investigated is solitude and death resulting from her physical pain. At this point, fear for loneliness and death that comes from her biographic facts, compulsory labor and parents' death in her early life falls on her poems. Death is generally located outside cognition so that you may not discuss it in death status. Through the perspective of poetic consciousness, however, assume that Roh Cheonmyeong's concept of death could bea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due to very long-time physical pain, then the subject caught up with such disorder cannot but escape from solitude and move forward into the others by means of *Lebenstriebe* linked with *Todestriebe*. Hereby the others lock solitude in as known in Roh Cheonmyeong's poems, and *Lebenstriebe* within self makes it welcome and greet another to

eventually make progress toward the others. Chapter IV makes a close inquiry into transcendence as escape from solitude. It means transition from one mode of being to another and also from survival in the restricted space to mode of being in the unrestricted space, which means transition from dimensions of consciousness to trust in god which belongs to dimensions of cognition. Then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s Divine Providence comes true through in awe of the others. The others exist in such the forms as leaves, wave on a lake, stranger's face, etc. These purified faces of the others connect to the thing that 'gets to something' that transfers ethics order so as to indicate 'resurrection of their consciousnesses'.

The significance of Roh Cheonmyeong's solitude themed literature consists in that Roh Cheonmyeong's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has not continued its flow but again she made her way toward them by way of psychological rebirth. It means a scapegoat for her solitude and the scapegoat just shaped her agape type of literature philosophy. For agape philosophy of her literature it is meaningful that Divine Providence acts in the others' faces as man's love for God. Roh Cheonmyeong's solitude makes her agape philosophy of literature happen through awe of the others, which means that Roh Cheonmyeong's poetic consciousnesses of solitude and transcendence have escaped both the past writer self-perception and worldly awareness of solitude to enter the realm of truth which is ethic and moral restoration.

Key words : loneliness, narcissistic, Death, Drive Death, Drive life, agape type of literature philosophy, Main agent, Das Ander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